

시민들에 힐링 · 추억 선사

익산시, 시민참여 문화유산 프로그램 운영 미륵사지 · 왕궁리 · 함열향교 일원서 진행

익산시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힐링과 추억을 선사하기 지역의 문화 유산을 활용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익산시는 이달부터 백제역사유적지구 3곳에서 문화재 활용사업을 전개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옛 선조의 배움터인 '함열향교' 일원에서 진행된다.

세계유산 미륵사지 · 왕궁리유적에서는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백제왕궁 달빛공연 · 천년별밤캠프, 4차 산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 등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는 시민의 역사 인식을 높이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프로그램은 8일부터 매주 토요일 국립익산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클래식과 국악 등의 공연을 진행한다. 백제왕궁 달빛공연은 한국 4대 고도

(古都)의 위엄을 보여주는 백제왕궁에서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왕궁리유적에서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시작된다.

백제왕궁 천년별밤캠프는 왕궁리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서동이 무당이 되기까지 겪었을 고난극복의 이야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캠프는 7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진행되며 5~6개의 미션수행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재를 재미있고 새롭게 배울 수 있다.

4차 산업과 문화유산과의 만남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을 4차 산업혁명으로 다시 조명해볼 수 있는 체험 활동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개정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숙, 강연숙)가 이웃돕기 행렬에 동참한 착한가게 8호점 차이홍(대표 최병오)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행복나눔 착한가게 현판식

개정동 '차이홍' 착한가게 8호점 가입 '작은정성이 희망'

군산시 개정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현숙, 강연숙)가 이웃돕기 행렬에 동참한 착한가게 8호점 차이홍(대표 최병오)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참여한 차이홍은 오랜전봉을 가진 개정동 대표 중국음식 맛집으로 손꼽힌다. 최병오 대표는 "이번 기부를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소의 되어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현숙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워

져 힘든 시기임에도 직접 따뜻한 기부의 뜻을 전해주시는 감사드린다."며 "모인 성금은 개정동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매달 3만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2021년 착한가게 릴레이에 현재까지 4개소가 동참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꼬꼬마 양배추 상품성 향상 컨설팅

전문컨설턴트 초빙 영농기술 교육 · 애로 해결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유망 품목인 꼬꼬마양배추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난 6일 수출용 양배추 재배현장을 찾아 '군산 꼬꼬마양배추 상품성 향상 집중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전문 컨설턴트를 초빙해 꼬꼬마양배추 재배관리, 병해충 방제 등 영농기술 교육과 함께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본 등 해외수출 시 검역위반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기준 기술지원은 수출용 양배추 재배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주는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대만과 일본에 250톤의 꼬꼬마양배추를 수출해

으며 올해에는 오는 6월부터 일본에 매주 10톤씩 꼬꼬마양배추 김치가 수출길에 오른다. /군산=한경봉 기자

나운1동 '부모님 사랑애향' 어르신 사랑세트 선물

군산시 나운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승수, 공공위원장 전은성)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소득 어르신 78가정에 '부모님 사랑애향' 어르신 사랑세트인 케네이선바누 조화비누와 롤케익, 사랑담은 카드를 전하며 감사와 위로를 전달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어렵고 쉽사리 가족 · 친지 · 이웃을 만날 수 없어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지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로하고자 실시했다.

나운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5월 가정의 달과 제49회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복지통장에게 대상자 추천을 받아 저소득 어르신 78가정에 '무궁하고 깊은 사랑'을 상징하는 케네이선바누 조화비누와 롤케익 · 사랑담은 카드를 준비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더 어려운 주민을 위해 나눔활동에 동참해 선풍 기부금(품)을 내어주시는 나운1동 착한가게 · 착한가

정 · 소상공인 · 주민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또한 나운1동의 한 제빵업체가 어린 아이들을 맞아 관내 지역이동센터 4개소에 롤케익 간식을 제공하는 등 선행이 이어졌다. /군산=남현봉 기자



5월 가정의 달 '부모님 사랑애향' 사업 어르신 사랑 세트 지원

군산시 부모학교, '감정코칭' 기본교육 개강

군산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2021년도 군산시 부모학교' 사업이 지난 6일,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번 부모학교 기본교육은 HD행복연구소 소장인 최성애 박사의 '내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이뤄졌다.

이번 기본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은 이후 ▲감정코칭 실습교육 수강권한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아이러브 프로그램 ▲special교육(미디어리터러시교육, 성교육, 두뇌발달교육, 자존감교육 등) ▲놀이 밥이다 ▲우리가족리프레시(가족캠프) ▲자부심상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군산에 거주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김창환 복지환경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가정양육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를 좀 더 이해하고 부모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모학교 참여 신청은 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063-734-3191)이나 아동청소년과(☎454-41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 행복세상 작은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익산시는 행복세상 · 그루터기 청소년 작은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에서 공모하는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해당 도서관에는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상주 작가 인건비와 함께 한 곳당 약 2000만원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해당 도서관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문인이 상주하며 지역민, 아동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세상 작은도서관은 중장년층을 위한 '한뼘자진소설' 쓰기 및 가족사진을 활용한 '여행 에세이' 쓰기, 지역민과 작가가 만들어 가는 도서관 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루터기청소년 작은도서관은 책사랑 · 선향 작은도서관과 연계, 시 읽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시 요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으로 시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 개원마을 90세 이상 어르신 건강기원 장수패 증정

군산시 미성동 개원마을 주민들은 5월 어버이날을 맞아 마을 내 90세 넘으신 어르신들께 건강을 기원하는 장수패와 쫄다발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미성동 개원경로당에서 열린 이번 건강기원 장수패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조출한 분위기였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미성동 개원경로당 전연식 회장은 장수패 및 쫄다발 전달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주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마을 어른으로서 계셔주시길 축원했다.

개원마을 최남석 통장은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 오늘 장수패를 전달받으신 모든 어르신들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